

개회예식

대연도✙ 219다함께
정심기도 (생략)
죄의고백 (생략)
기리에 (A곡).....✙ 246 / ✎ 68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신실하신 하느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 (읽는다) 창세 15:1-12, 17-18 말은이
시 편 시편 27편 다함께



- (계) 주께 - |서는 나의 빛, 내|구원|이시니,
○ 내가 누구를 두|려위|하 - 리오. -
(응) 주께서 내 생명의|피난|처시니
○ 나 누구를 무|서위|하 - 리오. -
(계) 나를 잡아 먹으려고 달려드는|악한|무리들
○ 나의 원수, 나의 적들, 휘청거리고|쓰러|지 - 리라. -
(응) 그 군대 진을 치고 에워|쌀지|라도
○ 나는 조금도 두렵지|아니|하 - 리라. -
(계) 군대를 몰아|달려들|지라도
○ 오히려 나는 그 가운데 마음|튼튼|하 - 리니 -
(응)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나의|소원은
○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사는|그 - 것뿐 -
◎ 영광 -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 - 멘 -

2 독서 (읽는다) 필립 3:17-4:1 말은이
복음서 (선다) 루가 13:31-35 말은이
설교 (읽는다) 말은이
사도신경 (선다)✙ 250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생략)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선다) ✙ 287 다함께
봉헌성가 391장 다함께
예물기도 (선다).....✙ 287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A곡)✙ 257 / ✎ 71다함께
마침영광송 ✎ 64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다함께
성체나눔 ✙ 269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A곡)✙ 270 / ✎ 72다함께
영성체 (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417장다함께
영성체 후 기도 (선다)다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본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안내로써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 (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 ✙ 288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선다) 332장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3월 13일)		다음 주일 성찬례 (3월 20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우영현	이복련	우영현	이성빈
2독서	정상임	신환중	정상임	박계자
대 도	-	-	-	-
십자가	윤용환	이용해	박해웅	차기성
다음 주일 3월 20일	전례독서 이사 55:1-9 시편 63 고린 10:1-13 루가 13:1-9 성 가 대연도 봉헌 416장 영성체 273장 파송 555장			
교 회 청 소	3월 19일 모니카회2조 김용학 정준희 이정숙 신희숙 정상임 최효은		3월 26일 모니카회3조 박계자 김예중 주애다 이순경 조혜순 김복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루가 13:31-35)

사순절의 정서는 ‘슬픔 아래에서 움트는 기쁨’입니다. 검게 언 땅을 뚫고 돋아나는 연둣빛 새싹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자신에게로 기우는 나약한 인간인 탓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수난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슬픔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에 힘입어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희망과 기쁨을 품는 때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고, 자신이 아닌 하느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당신의 사명인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수고를 세상 사람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저마다 자신만의 의로움을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만이 하느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이라 자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예루살렘’이

하느님의 평화와 너무나 멀리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이 하느님의 예언자들과 의인들을 대하는 모습은 전정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 모든 아집과 독선, 위선과 음모의 대표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사는 이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면서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동료인간들과 삼라만상을 너무도 쉽게 업신여기는 교만한 인간의 본성을 향한 탄식이십니다.

스스로 어찌 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느님께 몸을 돌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떠한 형식이나 미사여구를 쓰더라도 하느님을 삶의 수단으로 대한다면, 스스로 의로운 채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탄식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세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은 입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 할 사 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 사 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 회 장 김중희 요셉 사 제 회 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애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륜 유호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

■ 전례와 사목

1. 사순절기 전례 안내

- 평일성찬례 - 사순1주간부터 매일 오전 6시 30분 (성전) 정성을 다해 매일 성찬례를 봉헌해 주시고, 단체별로 지정된 요일은 꼭 함께 참여하여 주십시오.

- 월요일 - 교회위원회
- 화요일 - 나옴교회, 베드로회
- 수요일 - 모니카회, 안드레회
- 목요일 - G.F.S.
- 금요일 - 엑술타테회, 유빌라테회
- 토요일 - 교사회, 청년회, 성가대

- 우리 성당에서 먼 거리에 사시는 교우들은 가까운 성공회 성당에서 사순절 전례에 참여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지역 교회를 응원하고 돕는 좋은 길입니다.

■ 알림

1. 3월 교회위원회 의결과 논의 사항

- 이종한 요한 회장 원로 위원 추대 의결 - 추대예식 3월 27일 (사순 4주일 - 장미주일) 오전 11시 성찬례 중
- 십일조(월정/주정) 서약서 봉헌 - 사순 4주일 오전 11시 성찬례 (주보 간지 참조)
- 제단 공간 정비와 전례 영상 장비 구비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사목단, 신환중 위원, 추경민 위원)
- 주일 성찬례 중 프로젝트 사용 잠정 중단 - 제단 십자가 위치 중앙 복원 (개인 성가 사용 필요)

2. 성공회 성가책 판매

주일 성찬례와 전례 중에 사용할 개인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기도서와 같은 크기이며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성가를 사용하고 전례 중에 찬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25% 할인 가격인 1만5천원에 한시 판매합니다(4월부터 정가 2만원 판매)

3. 사순절 기도서 판매

선교교육국에서 발간한 <말씀과 이콘과 묵주로 드리는 사순절 기도>로 사순절 기도 생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와 이콘 카드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당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정가 5천원.

4. 제단 꽃 봉헌 요청

사무실 앞에 신청표에 봉헌하시는 분의 성함과 원하시는 날짜 그리고 내용을 쓰시고 봉헌해 주십시오.

■ 활동단체 소식

◆ 안드레회 씬지공원 봉단장

일시 2022년 3월 20일(다음 주일) 11시 성찬례 후 안드레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니카회 친교모임

일시 2022년 3월 20일(다음 주일) 11시 성찬례 후 장소 모니카 방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 박주영(14일) 윤길자(15일) 정희진(16일)
- 이선영 윤상기(17일) 한예린(18일)

◆ 별세 기념 떡 봉헌

- 홍성호 스테반 (이자영 수산나) 교우가 부친 별세를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봉헌해 주셨습니다.

◆ 혼배 공시 ◆

- 신랑 한종윤 예능 김민숙 테레사의 장남
- 신부 이혜진 이재현·김민수의 장녀
- 3월 26일(토) 낮 12시 서울주교좌성당

■ 십일조 · 월정현금 2,160,000원

- 김영대 주애다 우영현 이충웅 고창현 윤영옥 심동현 송미경 김재현 서세룡 추경두 선병순 윤선구 김진우 전유성 김종희 이성식 이복련 이용혜 윤지훈 조혜순 차영호 박영수 신명식 유인환

■ 주정현금 287,000원

- 강서린 김정숙 김경아 김삼홍 김예담 김요한 박남미 서정민 선병순 송미경 송종익 신희숙 유희주 윤영옥 윤영자 이경희 이성빈 이은미 이종한 전병도 정상임 주애다 주창남 주창순 진현경 한부순

■ 감사현금 2,270,000원

- 박남미(건강3만) 신정자(건강50만) 심주민(방문5만) 이난희(생활5만) 한재엽(생활5만) 한지원(생활5만) 홍성호 이자영(부친별세50만) 사순 광영환(1만) 김종희(5만) 박영수(1만) 송미경(4만) 송미정(3만) 우영현(10만) 윤범기(11만) 윤영옥(10만) 윤영자(1만) 이복련(5만) 이성식(1만) 이종한(5만) 이태훈(1만) 정상임(1만) 주창남(1만) 주창순(3만) 차기성(3만) 최효운(2만)

■ 기타현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146,000원

외부지원 목적 현금

■ 예수사랑현금 이복련(5천) 5,000원

■ 여성선교현금 이복련(5천) 우영현(3만) 35,000원

■ 온라인선교현금 이복련(5천) 우영현(3만) 35,000원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현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봉헌 서약 캠페인 1

봉헌 생활의 영성

“우리 삶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봉헌은 우리를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언제나 ‘예’ 하고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느님과 이웃에게 되돌려 드리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 헨리 나우웬

우리 삶은 여행입니다. 삶이라는 여행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라고 불러 주시는 하느님께 “예”하고 응답하여 걷습니다. 삶은 사랑을 향한 여행입니다. 초대하고 환대하며 같이 걷는 여행입니다. 평화를 향하고 널리 베푸는 여행입니다.

생명은 숨쉬기로 이뤄집니다. 탄생의 순간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종내에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우리는 생명의 숨을 받고 생명의 숨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선물로 받은 것을 다시 내어주는 행동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예”하고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널리 베풀고 보살피는 행동을 부모님과 가족, 친구와 교회 식구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성서와 복음 말씀에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야기로 우리 봉헌 생활을 격려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세리 자캐오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배풀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회는 봉사와 환대, 그리고 헌금 생활로 우리의 봉헌 생활을 격려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를 보살피는 손길은 고마운 봉헌입니다. 낯선 이를 교회에 초대하고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며 살도록 하는 일은 아름다운 봉헌입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로 베푸신 하느님의 선물을 다시 나누는 일은 값진 봉헌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숨결을 들이쉬고 내어주며 생명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받은 선물을 다시 나누고 베푸는 봉헌은 신앙인이 이웃과 세상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우리 생명의 여행을 “예”하고 받아들였듯이, 하느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널리 베풀라고 하시는 새로운 초대에 “예”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봉헌 서약은 그 응답의 첫걸음입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19를 넘어 일상회복을 위하여
- ◆ 대선 이후 사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 ◆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가정을 위하여

- ◆ 사순절기 동안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화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